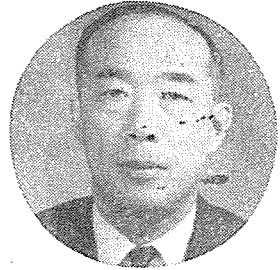


農業生産의 方向性



서울대학교 農大教授 李 殷 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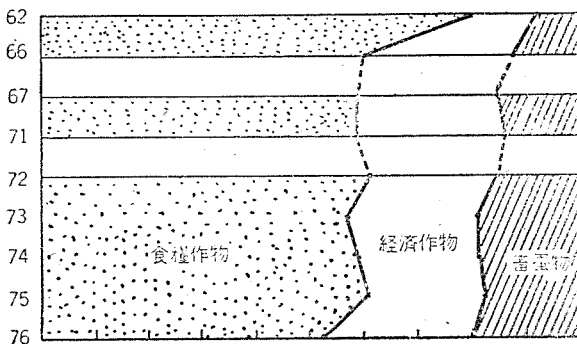
1. 穀物の 需給現況

우리나라의 農業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食糧作物의 栽培가 主幹이 되고 있다. 그리고 즉 1966年을 轉機로하여 經濟作物과 畜産部門이 若干 增加 傾向을 보였다.

한편 食糧의 自給率의 趨移를 살펴 보면 表 1과 같이 1970年 그 自給率은 80.5%였는데 그後 低下하여 現在까지 70~75% 範圍에서 波線을 보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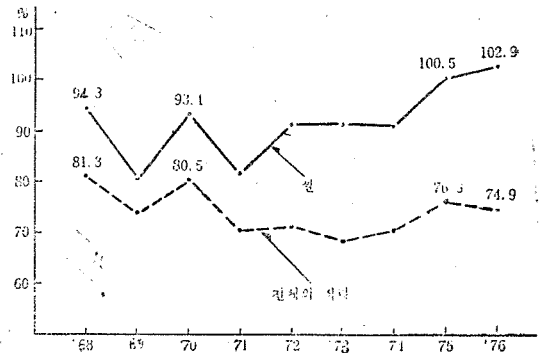
그러나 國民 食糧의 主宗이며 國民 食生活의 向上을 위하여 바람직한 米穀의 生産은 1971年 以來 繼續增收 實績을 보여 1975年 以後 米穀은 完全 自給(물론 混食 粉食 등 節米策下에서)을 보이게 되었다. 이것은 매우 多幸한 일이라 하겠으며 特히 過年에는 史上 最大의 豊作을 이루어 2400萬石의 生産을 거두어 段收로 보아 世界 最高를 보이였다.

農業生産의 構造變動



한편 全體 糧穀需給實績을 살펴 보면 表 1과 같다. 즉 國內 糧穀生産量은 1976年 7,692천%이고 導入量은 2,846천%이다. 그런데 導入量은 1968年 1,496천% 1970年 2,115천%에 比하여크

食糧自給率 趨移



게 增大하였으며 1975년에 比하면 多少 減少된 分量이다. 그리고 糧穀의 1人當 消費量은 늘고 있으며 自給率은 低下하고 있다.

表 2 全體糧穀需給實績 (單位: 千%)

		68	70	75	76
供 給	前年移越	1,333	1,455	2,106	2,987
	生産	6,483	7,037	7,295	7,692
	導入	1,496	2,115	3,147	2,846
	合計	9,315	10,635	12,548	13,525
需 要	食糧用	6,409	6,863	7,318	7,494
	加工用	668	855	1,034	1,202
	種子用	181	163	153	138
	飼料用	401	584	695	1,050
	減耗	317	352	361	386
	輸出	2	5	—	—
	合計	7,978	8,825	9,561	10,270
次年移越	1,337	1,843	2,987	3,255	
1人當消費量 (kg)		205.5	213.4	207.3	209.0
自給率(%)		81.3	80.5	76.3	74.9

資料: 農水産部 食糧局

導入糧穀에 대하여 穀種別로 살펴보면 表 2와 같다. 즉 밀의 導入量이 絶對的으로 크며 다음이 옥수수이고 그다음은 콩인데 옥수수와 콩의

農業生産의 方向性

導入量이 近者에 繼續 크게 늘고 있는 實情이다

表 3 糧穀導入 實績 (單位: 1,000%)

	쌀	보리	밀	옥수수	콩	計
1970	541		1,254	284	36	2,115
71	907		1,492	383	61	2,883
72	584	254	1,831	461	31	3,210
73	437	350	1,797	576	73	3,270
74	206	299	1,591	569	66	2,732
75	469	400	1,800	550	60	3,279
76	157		1,711	859	119	2,846

이들 穀物의 國際價格動向을 살펴보면 表 3과 같다. 즉 1972年 後半期부터 穀物의 國際價格은 오르기 시작하여 1973년에는 暴騰勢를 보여 1971年の 3~4倍에 達하게 되었고 1975에는 1971年の 2.5倍價로 그리고 現在 약 2倍價에 머물러 比較的 安定된 保合勢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穀物自給度를 國際間에 比較하여 보면 表 5와 같다. 즉 大部分 先進國의 穀物自給率은 우리나라 보다 높고 日本은 매우 낮다.

한편 1人 1年當 穀物消費量을 國際間에 比較하면 表 6와 같다. 즉 食料用으로 消費되는 穀物은 우리나라 209kg, 이탈리아 약 134kg, 日本 127kg으로써 많으며 그밖의 나라는 75kg 未滿으로서 매우 적은데, 이것은 表 5와 聯關하여 보면 自給率이 낮은 나라에서 食料로 消費되는 穀物의 量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런데 飼料用으로 消費되는 穀物은 캐나다, 미국 등은 700

表 6 1人 1年當 穀物消費量 國際比較

(單位: kg)

	食 料 用			飼 料 用			合 計 (1971/72)
	1965/66	1970/71	1971/72	1965/66	1970/71	1971/72	
캐나다	69.4	68.2	69.0	593.2	720.7	734.1	803.1
美國	65.2	63.9	64.4	565.7	669.7	668.6	733.0
佛國	90.1	78.6	76.4	273.2	296.5	298.1	374.5
伊太利	132.1	133.7	134.5	269.9	247.5	203.8	338.3
西獨	73.3	68.3	67.7	188.1	247.9	248.6	316.3
日本	145.0	128.5	127.0	61.0	103.9	106.6	233.6
英國	76.8	73.5	72.3	237.1	287.7	250.8	323.1
韓國	205.5 (1968)	213.4 (1970)	209.0 (1976)	10.0 (1968)	18.0 (1970)	30.0 (1076)	239.0 (1976)

※日本 農林統計叢書 4.

表 4 國際穀物價格動向

(單位: US \$ /%, FOB)

品種	년도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쌀	129	148	368	578	364	263
밀	60	65	180	200	170	130
옥수수	55	60	170	180	170	115
콩	120	140	210	266	215	225
보리	55	59	170	180	175	121

表 5 穀物自給率의 國際比較 (單位: %)

	1965/66	1970/71	1971/72
캐나다	187	135	179
美國	132	112	140
佛國	135	147	163
伊太利	71	72	71
西獨	67	70	83
日本(穀物 (쌀除外))	61 (24)	48 (7)	42 (7)
英國	63	60	65
韓國	81.3 (1968)	80.5 (1970)	74.9 (1976)

kg 內外로서 대단히 많고 우리 나라가 매우 작으며 日本은 약 107kg을 보이고 있다. 穀物의 全體消費量은 캐나다 및 美國이 크며 우리나라의 3倍 이상이나 된다.

2. 方 向 性

우리 나라의 農業은 表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單位 經營의 耕作面積이 매우 작다. 그래서 作物栽培는 生産의 一貫된 機械化가 不振하며

小型機械의 普及에 多勞, 多肥, 多藥의 方向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經營의 生活과의 不離가 어려우며 收益과 採算에 대한 고려가 未洽하며 農業所得의 增大가 생각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形편이다. 또한 土地의 生産性 즉 單位

~2.5倍 水準에서 比較的 安定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國內의으로는 多收性인 統一型 水稻品種의 開發 및 普及이 米穀增産에 先導的 役割을 크게 함으로써 米穀 즉 主食糧의 自給을 達成하게 되었다.

表 7 主要國의 農家當 耕地面積

國 名	戶當耕地面積(ha)	國 名	戶當耕地面積(ha)
카나다	90.0	서독	4.6
미국	47.6	이탈리아	3.5
영국	18.4	인도	3.4
덴마크	13.7	일본	0.9
프랑스	10.2	한국	0.93

*1974 FAO 統計

面積當의 收量 또는 生産額도 米穀을 除外하고는 높은 편이 못되며 勞動의 生産性 즉 單位勞動當의 收量 또는 生産額도 매우 낮다. 그러므로 作物生産物의 價格은 國際價보다 높으며 國際競爭에 뒤지고 있다.

한편 그間 1971년까지만 해도 糧穀은 安價한 外國農産物, 主로 美國剩餘農産物의 長期低利借款(美公法 480)에 의한 導入을 하였고 穀物의 自給率은 1968年 81.3%에서 1976年 74.9% 떨어졌다. 食糧의 供給 역시 一般의으로는 安價한 糧穀을 供給해야 한다는 意見이 支配的으로 作用하기도 하였으며 貿易自由化 國際分業이라는 主張도 있었고 美國의 剩餘農産物도 있어 그것을 손쉽게 導入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1973年 소련이 國際穀物市場에 介入하여 大量의 穀物을 買入하게 되고 美國 그밖에 여러 나라에서 農産物의 輸出을 規制하게 되어 國際穀物價格은 暴騰하게 되어 穀物導入國은 食糧波動을 겪게 되었으며 加霜으로 에너지波動과 같이 쓰라린 體驗을 하게 되고 一轉하여 食糧自給의 重要性이 再頭하게 되었다. 이제 國際的으로도 穀價는 1973 및 1974년에 比하여 떨어지고 1971年の 2倍

糧穀이란 元來 生産이 多少 過剩하게 되면 農業生産을 輕視하며 또 不足하다고 보여지면 自給을 의지하게 된다. 그러나 農業生産이란 奇蹟이 없으며 또한 自然의 環境 특히 氣候의 條件에 左右되는 部分이 많으므로 해에 따른 豊凶의 差가 크다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우리는 恒常 過剩을 備蓄으로 돌리고 不足에 對備할 必要가 있다 일단 中斷되어 耕地가 荒廢하면 短時日內에 回復될 수 없고 離農 또는 兼業化에 의한 農民의 損失은 耕種技術의 低下를 招來하기도 쉽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實情은 日本의 農業生産構造에서 잘 볼수 있고 그들이 日本農業生産을 걱정하는 것도 當然한 일이다. 近者의 우리나라 農業生産의 패턴이 日本의 그것을 뒤쫓고 있는 느낌이 길다고 보여진다. 經濟成長에 따르는 畜産物의 需要增大는 派生的으로 飼料穀物의 增大를 크게 하고 있어 옥수수과 콩의 導入量이 또한 크게 늘고 있는 實情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大麥의 增産餘地가 相當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實績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 대한 麥類의 飼料化問題 등을 생각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또한 歷史의 敎訓을 잘 되새겨서 食糧自給 向上의 觀點에서 國土의 農業的 資源을 效果의으로 利用하는 緻密한 計劃이 있어야 하며 水利資源의 有效的인 利用, 都市 近郊의 土地利用, 그리고 畜産物의 合理的 生産과 規模의인 消費 및 飼料作物의 增産을 위한 作付體系의 改善 등에 대한 仔임새 있는 計劃의 樹立과 이의 遂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農業生産을 擔當할 頭腦 있는 人的資源의 確保가 要請된다. 우리는 決코 貴重한 歷史的 敎訓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